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5〉

無心하면 고통을 여읜다

학승이 물었다.
"사방의 산이 핍박해 올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길이 없는 것이 조주(趙州)이다."

問 四山相逼時如何
師云 無路是趙州

사방의 산이 밀려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되거나, 피할 수 없는 병마가 닥쳐오거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거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만나는 것이다. 이럴 때 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궁금하여 묻는 것이다.

물론 병을 고치거나 살아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를 당해 무슨 수가 있겠는가. 길이 없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 그 때가 지금이다. 두려움도 슬픔도 필요 없다. 고요히 죽음을 받아들여라. 진시황도 죽었고 4대 성인도 죽었다.

진실은 죽음[死]도 없고 생[生]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최후의 순간에 어리석게 발버둥치는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온갖 가치(價値)의 끈을 놓아버려라. 최후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 나는 부처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 저 앞에 있다. 당당하고 평온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

학승이 물었다.
"옛 궁전에 임금님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기침을 해 보였다.
학승이 말했다.
"그러시면 신(臣)이 폐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둑의 정체가 벌써 드러나 버렸군."

問 古殿無王時如何
師咳嗽一聲
云與麽即臣啓陛下
師云 賊身已露

옛 궁전은 사람마다 옛 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의 세계를 말한다. 만물이 나온 '근원처'를 옛 궁전이라고 비유했다. 임금이 없다는 것은 그곳은 '무심(無心)'의 세계이다. 수행자가 근원에 도달하면 무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무심을 얻으면 남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슬퍼하지 않는 대무심 속에 들어간다. 이때의 경계를 뭐라고 해야 할까?

조주 스님은 짐짓 "어험!" 하고 헛기침부터 해 보였다. "임금님이 없기는 왜 없어. 무심이라고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야"라는 뜻이다. 진정 무심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런 조주 스님의 헛기침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공간에 다만 '헛기침'만 울릴 뿐, 거기에 이러니저러니 분별망상이 일어날 턱이 없다. 이런 기침에 반응해 주인이니 신하니 하면서 분별을 일으킨다면 그는 무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만 남의 경계나 엿보려는 한낱 도둑일 뿐이다. 선사는 다만 헛기침 하나로도 즉시 상대를 간파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기침에조차 반응하는 자라면 아직 멀었어"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그렇다면 참[眞]을 참구하는 납자들이여, 조주 스님이 헛기침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무심을 이해하는 사람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줄의 염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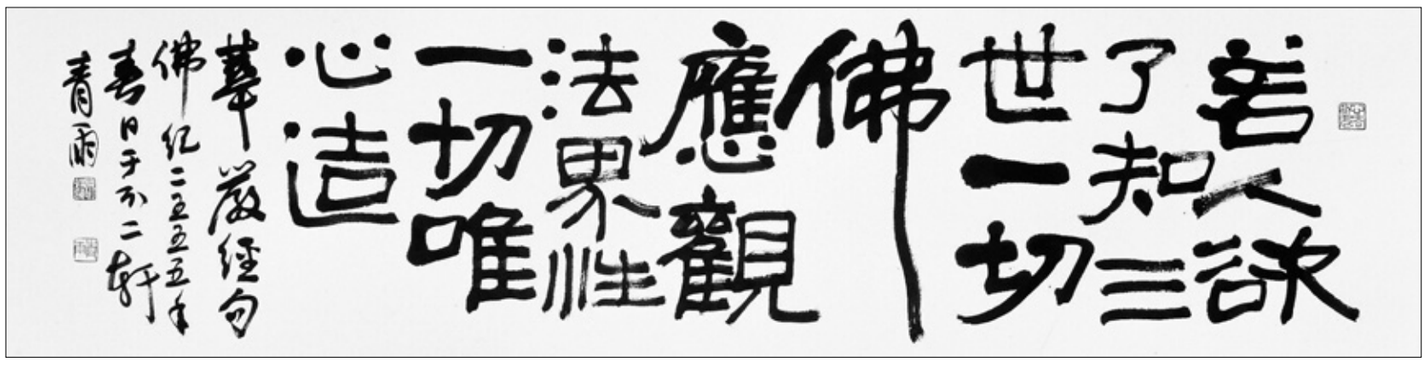
問 和尚年多少
師云 一串數珠數不盡

이 질문은 〈조주록〉의 대화가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한 단서가 된다. 본래 염주는 108개이다. 이 108개의 염주 숫자로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조주 스님의 나이가 최소한 108세 보다는 더 되었다는 말이다. 본 〈조주록〉하편은 도가 완전히 무르익은 100세 이상의 완숙한 나이의 대화록인 것이다.

그런데 선사들은 '내 나이가 110세니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왜 항상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진실은 '나'도 없고 '나이'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정 지어 말하지 않는다. 비유를 들어 알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것이 선불교의 독특한 교시법인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⑬ 일체유심조



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불세계관 일체유심조
화엄경구
불기이오오년
청우

應: 응할 응
觀: 볼 관
唯: 오직 유

모두가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다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모두가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니라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선어록 해제 45 한국선과 선어록 16 조원통록촬요(祖源通錄撮要)

중국·신라·고려 조사들의 기록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은 〈선원제전집도서〉와 〈법집별행록절요〉 등을 통해 교학을 다졌으며 〈서장〉과 〈선요〉 등으로 선법을 터득했다. 이 밖에도 11세기 말엽 송대에 공진이 찬술한 〈조원통록(祖源通錄)〉 24권을 4권으로 촬요해 6세 때 백운산 만수사에서 〈조원통록촬요(祖源通錄撮要)〉를 간행하면서 그 발문을 붙였다. 이 〈조원통록촬요〉는 석가모니부터 중국 · 신라 · 고려의 조사들에 대한 기록으로 전등사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해당하는 나옹혜근에 대해서는 말법시대에 불교의 정법안장을 부흥시킬 인물로 석가모니의 후신으로까지 칭송하고, 그 법계를 중요시해 또 다른 측면에서 법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엄 당시에 전승되고 있던 선법의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신라 말기에 선법이 처음 전래된 때부터 국내를 통해 전승되어 온 법맥과 원나라 시기에 중국을 통해 새롭게 전래된 법맥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소위 구산문 가운데 사굴산문의 법맥과 가지산문의 법맥이 뚜렷했고, 후자의 경우는 고려말기 태고보우 · 백운경한 · 나옹혜근을 통한 선법의 전래이다.

해동의 새로운 전등계보 확립
나옹혜근의 말법의식 담아내

이들은 단순히 유학파와 국내파라는 도식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점은 지니고 있지만 적어도 법맥의 전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계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태고의 계통 이외에 나옹의 법맥을 중심으로 해동의 새로운 전등계보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자료로 〈조원통록촬요〉가 있다. 이 점의 서지학적인 추론에 대해서는 일찍이 고익진 선생이 주목해 간략하게 발표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 촬요의 발문을 붙인 인물이 지엄이라는 점에 주목해 그의 해동법맥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가 있다.

보리달마를 비롯한 중국선종의 역사는 소위 달마로부터 혜능에 이르기까지의 초기선종시대 이후에 남 · 북종의 정통문제를 거치면서 중당 이후부터는 남종의 일색으로 법맥의 계보가 분명해진다. 그에 대한 전등사서의 계보는 지거의 〈보림전〉(801), 정 · 균의 〈조당집〉(952), 도원의 〈경덕전등록〉(1004)을 위시해 17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가운데 11세기에 중국에서 편찬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 해동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조원통록〉에 대해 〈조원통록촬요〉의 내용은 해동의 선법맥에 관해 주목되는 점이 보인다. 곧 신라의 승려 34명과 고려초기 영명연수 휘하에서 수학한 고려의 승려 및 고려 말기의 나옹혜근에 대한 기록 등 50여 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옹혜근을 말법의식과 더불어 석가여래의 후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엄이 살던 당시의 불법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 극복방법으로 전등계보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 내용은 종안(宗眼)과 정전(正傳)의 품을 통해 인도와 중국의 33대 조사들의 전기를 소개하고, 호현(互顯)의 품에서는 우두종 및 북종을 비롯한 중국의 다양한 종파의 선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서 산성(散聖)의 품에서는 유마와 포대화상을 비롯한 재가인 등을 소개하고, 유통(流通)의 품에서는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끝맺고 있다.

〈촬요〉는 바로 그와 같은 전법의 중요성이라는 일환에서 등장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지엄의 각성 또한 해동의 법맥을 확립하려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촬요〉에 지엄이 붙인 발문의 내용은 그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큰스님들은 늘상 게송을 통해 조사선의 가풍과 사상 및 그들의 전법에 대한 의식을 다짐하곤 했었다. 오도송과 전법게송 및 열반송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서 미타불을 염하여 자성의 깨침을 겨냥했고 정토를 희구하여 중생과 더불어 안락찰토에 나아갈 것을 기원하였다. 그러는 과정에도 항상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기 위해 서천의 역대조사들과 동토의 제조사 및 해동의 큰스님들을 위한 예배와 수참을 게을리하지 않고 경론과 어록 및 경책에 관한 전적을 개판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곧 석가여래행적송, 통록촬요, 원인론, 한산시, 재계문, 효순문, 살계문, 발원문 등에 대한 불법의 전적에 대한 화주와 법연을 펼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아울러 석가모니로부터 계승되는 역대조사의 가르침은 방편과 진실 및 돈오와 점수 그리고 제자들의 접화를 위한 간략한 게송의 제시는 간략하면서도 널리 불법을 전파하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의 홍포는 오백나한의 지혜와 방편을 의지한 것이었지 나스스로 아무렇게나 드러내고 설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니 옛 조사들이 제시해준 바른 도리와 성인들의 무위법은 감히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귀중한 가르침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발문은 지엄이 〈촬요〉에 대해 그 의도와 가치에 대해 얼마나 정녕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엄은 억불과 법맥의 단절에 대해 단순하게 관심을 지니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벽계정심 선사를 통해 전등조사들의 의기를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도서나 〈법집별행록절요〉를 통한 경안(經眼)을 정립하는 즈음부터 〈선요〉와 〈대혜어록〉을 가까이 하면서 무자화두를 통한 오도의 과정이나 초학자를 제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조지눌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교학의 안목과 선법의 통찰을 제시했다. 이 또한 기존의 전통선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계승에 대한 강한 의욕이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